

전주-수원 상생발전 자매도시 결연

역사·사람 중심 시정운영 방침·FIFA U-20월드컵 개최도시 공통점 토대로 다양한 교류·협력

전주시와 수원시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13일 수원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열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양 자치단체 간부공무원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시의회 의장 및 의원, 양 도시 시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도시 체결은 수원시의 공식 제안을 전주시가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이날 협약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시정목표로 한 전주시와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시정목표로 한 수원시는 자매도시로서 미래발전적인 시정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양 도시 간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

특히 양 도시는 경기전과 수원화성으로 대표되는 역사도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정운영방침, 2017 FIFA U-20월드컵 개최도시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양 도시는 청년정책과 아동친화도시 지정 등 유사사업의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평등과 신뢰의 원칙에 근거해 경제·문화·교육·체육·인적 교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17 FIFA U-20 월드컵의 개막전과 결승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 도시는 더욱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다가오는 축제를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양 도시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주-수원 간 건강먹거리 연결망 구축을 위한 협력도 전개된다. 시는 이번 자매도시 결연을 통해 수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 군장에너지(주)가 13일 군산시 대야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초록괴물의 짜릿짜릿 에너지 이야기' 교육을 하고 있다.

원시의 문화·예술 분야, 스포츠 교류, 건강먹거리 등 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협력 등 정책연구·정책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전기·전자·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된 만큼 전주시의 탄소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열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월 전주에서 열린 목민관 클럽 참석 후 수원시 공무원들에게 전주시의 우수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자매도시 결연 체결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열태영 수원시장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김승수 시장님과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의 수원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양 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역사·문화적인 배경과 FIFA U-20월드컵 개최전·결승전 개최도시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전주-수원간 자매결연을 67만 전주 시민을 대표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 도시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남는 것들을 도와준다면 모두 잘살게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내 한 여고 교사 기말고사 문제 유출

수업중 여러 유형의 문제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교육청 진상조사

도 교육청 확인 결과 19문제 중 5문제 일치·유사

전주시내 한 여고에서 교사가 기말고사 문제를 일부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시내 A 여고 수학담당 B교사는 기말고사 시험을 1~2주 앞두고 수업을 하던

서 여러 유형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B교사는 1학년 전체 10개 학급 중 자신이 맡은 4개 반 학생들에게 문제를 알려줬다. 하지만 B교사로부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 등은 문제 유출이라며 항의했다.

또 이 사실을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다른 반 학생들과 학부모의 항의로 학

교가 자체 조사에 들어가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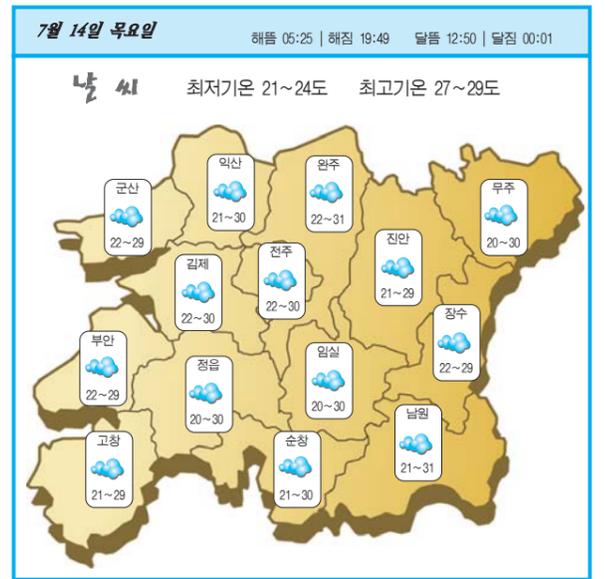
도 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실제 이날 초 진행했던 시험에서 총 19문제 가운데 5문제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B교사는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준 것이며, 풀어준 내용 일부가 시험에 일치하게 출제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학교성적관리위원회는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14일 재시험(수학과목)을 치르기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상 조사를 거쳐 학교 측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원광대, 캡스톤디자인 옥션마켓 경진대회 개최

업체들과 기술이전계약 체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열고 관련 기업체들과 수천여만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송산기념관 로비 및 LINC전시관에서 2016년 캡스톤디자인 옥션마켓·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캡스톤디자인 옥션마켓&경진대회는 2016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결과물을 대상으로 대학가속기업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산학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리파프로 플리스와 차카치카 팀의 '수용성 프롤리스 첨가 치약개발 기술'과 6조 팀의 '스마트 연계형 다기능 창문 개발기술', Eme 팀의 '스마트폰 연계형 지문인식 잠금장치 기술'이 알레스티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또, SOAP 팀의 '미용 비누 개발 기술'도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아이템 개발과 관련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어 시장진출이 기대되는 등 학생들의 창의 아이디어가 학교기업과 기술이전계약으로 성사된 건수는 총 26건에 계약금이 2,700만 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변비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푸른콩야채, 폐모발피스를 활용한 소품, 가스센서를 이용한 실내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치약과 비누 등 전공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제품이 출품돼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원광대 LINC사업단 송문규 단장은 "학생들이 창작 아이디어를 위해 오랜 기간 치열하게 고민한 열정이 돋보여 감명 받았다"며, "LINC사업단은 앞으로도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탄생부터 특허출원, 창년기업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나간다는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행복한 동행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전라북도교육청은 더불어 가는 학부모교육을 꿈꿉니다.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위한 행복한 동행, 전북의 학부모 여러분이 함께 걸어 주세요.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